

월간 실적보고

2018.07

Summary of 2018 Jul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15.6% YoY**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0.0% YoY**

- 패키지 **-6.9%** / 티켓 **-13.0% YOY**

(11만명 / 10.6만명)

3.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YoY)

- 중국 **+4.7%**

- 유럽 **-2.4%** 동남아 **-6.1%** 일본 **-13.0%** 남태 **-19.1%** 미주 **-23.0%**

7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YoY -15.6%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YoY -10.0%, 송객인원 21.7만명

패키지 인원 YoY -6.9%, 11만명. 근거리 인기지역인 일본의 자연재해 발생 (지진, 홍수)과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위축, 그에 따른 여행수요 둔화로 인한 볼륨 감소.

티켓 인원 YoY -13.0%, 10.6만명. 2018년 두번째로 많은 월간 송객인원. 여행수요 둔화에 영향.

7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8	110,618	106,432	217,050
2017	118,855	122,314	215,779
YOY	-6.9	-13.0	-10.0

패키지 YoY : 2018년 5월 18.1% → 2018년 6월 7.5% → 2018년 7월 -6.9%

티켓 YoY : 2018년 5월 -6.1% → 2018년 6월 -7.2% → 2018년 7월 -13.0%

총송객 YoY : 2018년 5월 6.6% → 2018년 6월 0.4% → 2018년 7월 -10.0%

지역별 성장 (YoY)

중국 +4.7% 유럽 -2.4% 동남아 -6.1% 일본 -13.0% 남태 -19.1% 미주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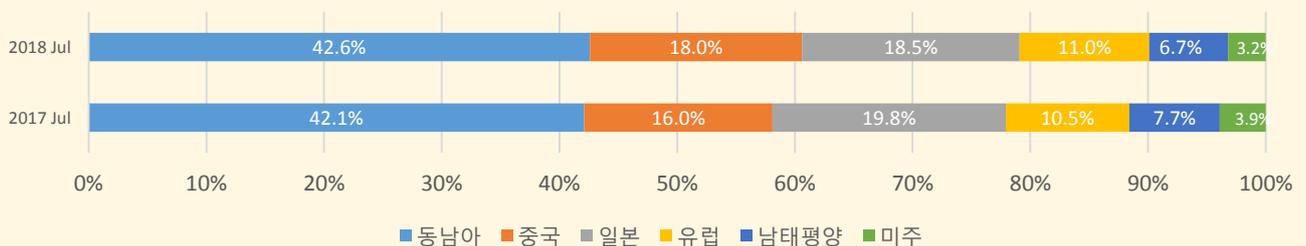
중국 +4.7%, 전년 동월의 낮은 베이스의 영향으로 인한 유일한 플러스 성장

유럽 -2.4%, 전년 동월의 역기저를 고려하면 장거리 지역 중 가장 양호한 성장 (2017년 7월 YoY 37.9%)

일본 -13.0%, 전년 동월 높은 베이스(2017년 7월 YoY 45.4%)와 지진, 홍수 등의 악재로 인한 부진

남태 -19.1%, 미주 -23.0%, 항공편 감소와 소비심리위축으로 ASP가 낮은 근거리를 선호함에 따른 부진
기저효과가 가장 큰 중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한 전반적인 여행수요 감소의 영향 받아 볼륨 감소.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

	2018년 8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
예약률	-0.5	-7.8	10.9

* 2018.07.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8월과 9월 예약률 모두 전월 (2018년 6월 30일 기준) 예약률 보다 감소. 상반기 중 발생한 각종 대형 이벤트 (평창 동계 올림픽, 전국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로 인해 억제되었던 여행수요가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추측. 지역 이슈도 발생하여 (일본 지진과 홍수)도 부정적 추가 요인으로 작용. 부정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3분기의 불륨 측면에서 부진함이 도드라짐. 4분기인 **10월** 예약률은 **두 자릿수**로 좋은 출발. 지역적 악재의 자연적 해소 (일본 자연재해 회복, 필리핀 보라카이 재개장)와 성수기 대비 낮은 ASP로 인해 상대적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여행수요의 회복 기대.